“한 마음 담긴 가르침, 여여하게 이어갈 터”

한마음선원, 5월 1일 ‘대행 선사 10주기 다례재’ 봉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00여 사부대중 가르침 기려
열반10주기 맞아 게송집 봉정
추모 영상선 ‘관법’ 요체 전해

법산 스님 헌시 등 추모 열기
혜수 스님 “변함없는 정진 감사”


한마음선원은 5월 1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선사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기나긴 코로나19기간을 뒤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 이번 다례재는 대행 선사가 남긴 중생 제도에 대한 서원의 장이 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5월 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 열린 이번 다례재는 국내외 25개 지원 신도 및 주요 임원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식전 사부대중 의식으로 시작됐다. 주지 혜솔 스님을 법주로 대중들은 천수경을 봉독하고 축원,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을 진행했다.

이어진 다례재에는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 청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 헌화가 이어졌다. 또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에 맞춰 편찬된 게송·선시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 스님 영전에 봉정됐다. 이밖에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대행 선사를 향한 추모와 가르침을 실천해갈 것을 다짐했다.

다례재에서는 열반 10주기 추모특집 영상 ‘믿고 놓고 관(觀)하라’가 상영됐다. 이 영상에서 대행 선사는 대중들에게 관법수행의 요체를 전했다.

영상에서 대행 선사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믿고 맡겨놓으라”며 “관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물을 지켜보고 용도에 따라 딱 맡겨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아야 한다. 마음에 불이 들어온다면, 서로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매한가지니, 그 이치를 알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길은 나부터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체 만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까닭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공덕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는 마음 씀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심 하는 것과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믿고 맡기는 것은 다르다. 마음을 좀 더 넓게 쓰라”고 했다. 대행 선사는 “매번 잘되는 것만 있으면 진리가 아니다. 종점과 시점이 둘이 아닌 이치”라며 “만약 일이 안풀릴 때는 ‘아, 이 안되는 것은 나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한 것이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생각이 굴려 나오는 것이기에 엉키고 성킨 것도 한 생각이 풀 수 있다”고 전했다.

다례재에서는 본원 선법합창단이 ‘우리들의 마음’ 선법가를 부르며 가르침을 내린 대행 스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조계종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참석해 추모사와 추모시를 낭독했다.

혜총 스님은 추모사로 “대행 스님은 일체 제불의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설하셨다. 대행 스님이 설한 아픔과 즐거움, 시작과 끝이 한마음이라는 가르침에는 생로병사를 여의는 법이 들어있다”며 “오늘 스님 영전에 올린 꽃에 담긴 마음을 뭇생명에게 올리는 공양의 마음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열반 10주기를 기리며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추모시 ‘오월의 아침’과 ‘서산정’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스님은 ‘오월의 아침’에서 “먼동이 트면 산새들 노래하고/아침 햇살에 미소 짓는 들꽃/서산정 창가에서 푸른 하늘 보며/두볼에 피어나는 그윽한 법향/주인 없는 빈 동산 백화가 만발하고/접동새 선법가에 벌 나비 사뿐사뿐/서산정 추녀 끝에 울리는 풍경소리/두 손에 든 찻잔에 그려보는 미미소”라고 읊었다.

법산 스님은 “선원 스님들과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어 흐뭇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르침을 잊지 말고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큰스님 관법에 대한 가르침은 수십 번을 들어도 또 놓치는 게 있고, 관하고 관해도 놓치는 것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깊어지고 커진다”며 “큰스님 열반 이후에도 함께 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 사부대중이 신도들이 함께 정진해주고 큰스님 계실 때와 변함없이 걸어가 주셔서 여여하게 정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 많은 대중들이 다례재 전 안양본원을 찾아 헌화 분향했다.


분황사 대웅전 모습.

印 분황사 대웅전 준공 백만원력 첫 성과

조계종, 5월 21일 준공식 인도 현지서 공식 행사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종책 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첫 성과가 인도 부다가야에서 결실을 맺었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인도 현지에서 봉행한다. 준공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삼혜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 등 국내 15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현지 기준 500여명 규모로, 법회 당일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발공양도 진행된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는 백만원력결집불사 사업의 첫 성과로 주목된다. 특히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건립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돼 의미를 더한다.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불자들의 뿌리인 부처님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되는 한국 전통 양식의 대웅전은 한국불교의 전통문화가 세계에 널리 펴져 나갈 수 있는 공간, 순례자들을 위한 참배의 공간인 동시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식을 포함해 5월 17일~24일 일정 동안 동참자들은 부다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갠지스강), 영축산, 죽림정사, 나란다대학 순례도 이어간다. 특히 5월 20일에는 마하보디대탑에서 부처님 복장의식을 비롯해 고불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도 분황사 건립불사는 2019년 12월 통도사 청하문도회가 인도 현지에 부지 약 2000평을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설매·연취보살이 50억 원을, 백천문화재단이 보건소 건립기금 3억 원을 쾌척한 가운데 불자들이 십시일반 기금모연에 동참했다. 이후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인도 현지 물라상가 이사장 부다팔라 스님이 총도감을 맡아 불사를 지속해 왔다.

송지희 기자

금강산 신계사 홈페이지 개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금강산 신계사 홈페이지(www.singyesa.org)를 제작했다.

민추본은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불교도가 함께 이룬 신계사 복원의 의의를 계속해서 알리고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금강산 신계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계사 홈페이지는 큐알코드로도 접속 가능하다.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등을 달 수 있다. 02)720-0531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건학위 출범 1주년…학비·취업 걱정없는 동국대로

4월 29일 기념식서 비전 선포
동국건학장학회, 35명에 증서
건학이념 구현 출판위원 위촉



건학위원회는 4월 29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고 100% 취업할 수 있는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을 선포했다.

건학위원회는 4월 29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일신하고자 원력을 모았다. 특히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가운데 ‘동국발전 불교중흥’의 비전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다.

고문 자승 스님은 돈관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지난 1년간 건학위원회가 유익한 발전을 지향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온 성과에 치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라진 것을 찾아내고, 숨어있던 것을 보이게 하고,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만들어 내는 노력과 정성들은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내고 바르게 대응하는 건학이념의 유용한 실천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동국학원을 인재양성의 보고로 이끌고 있는 장학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건학위원회의 1년의 노력으로 불교계는 여느 때보다 장학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산하학교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교원은 연구와 교육에서 사회발전의 속도에 발맞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동국건학장학의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서울캠퍼스 30명, 경주캠퍼스 3명, 의료원 2명 등 35명이 1기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장학생 신청자는 330여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신행활동, 학업수행, 역량수행, 미래발전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학생들이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도서출판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불교사전〉 편찬을 위한 책임편찬위원에는 황순일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장이, 〈부처님의 생애〉 책임편찬위원에는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혜명 스님이 위촉됐다. 또 김경래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교수, 이자랑 서울캠퍼스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윤재웅 서울캠퍼스 다르마칼리지 학장, 박기련 동국대 출판문화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관련기사 B13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봉축

2566(2022).05.08
부처님 오신 날

나누면 따뜻해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